

# 떨어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대담미술관, 강현덕 초대전 '단 한 번의 반짝임'

모든 생명은 탄생하고 사라진다. 열매를 맺는 황금기도, 생기를 잃고 떨어지는 소멸기도, 존재하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를 주제로 강현덕 작가의 초대전 '단 한 번의 반짝임'이 열리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것은 액자 드로잉 소품이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 작품들은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가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다. 작가는 전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기에 딱히 이름조차도 떠올리기 힘든 어떤 것들을 생각의 중심부로 소환한다. 수없이 쌓여 있는 이름 모를 사물들 사이에서 내게 필요했던 하나가 비로소 특별해지는 순간을 포착해 드로잉으로 기록을 남긴다. 드로잉을 지나 선보이는 신작 플라주 회화 9

점은 낫설다. 파랗게 녹여 색을 물들인 사물의 조각, 회화에 바느질을 결합한 종이 플라주 등 다양한 오브제에 눈길이 간다. 작품들은 액자 없이 걸려 있어 삶의 여정 중 보고 겪는 소소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기억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규칙과 순서에 따라 바느질로 접합돼 있는 종이 오브제들은 작품에 생동감과 리듬감을 준다. 지나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설렘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덕 작가는 전주와 서울, 그리고 독일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멘 예술대학에서 설치미술로 마이스터를 획득했다. 장소특정적인 회화와 설치미술로 다양한 현장에서 개인전을 펼쳐왔다. 전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문의 061-381-0082. /이연수 기자



강현덕 작 '다이아몬드'



금주의 문화 브리핑

-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 ◇11시 클래식 산책 '클래식 기타로 듣는 동요' = 12일 오전 11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 ◇소프라노 박하영 독창회 =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 ◇윤화매에 스민 우리음악 = 12일 오후 7시30분 윤화매 문화관
- ◇광주 장애인 미술협회전 = 12-24일 광주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
- ◇북경창작센터 성과발표전 '2016-2017 북경집주' = 12일-8월26일 시립미술관 본관 제 5, 6전시실
- ◇예술의 전당 '썩은스크린 클래식음악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 1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 ◇김정열·김종국 2인전 = 14-20일 무등갤러리



- ◇광주시립발레단 '발레갈라콘서트 백조의 호수 프리뷰' = 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3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사진>
- ◇유스퀘어 청년작가 김계진 개인전 = 15-21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
- ◇허승연 개인전 = 15-21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2관
- ◇공간속의 이야기 story in space = 15-24일 양림미술관
- ◇아카데미 '빛과 소리로 떠나는 세계 여행' = 16일 오전 11시·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극단 해보마 '두드려라, 맥베스!' = 16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제85회 광장음악회 '꿈꾸는 음악' = 16일 오후 7시30분 물빛근린공원
- ◇NEC영티스트 콘서트 = 17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 ◇공연장상주단체 우수레퍼토리공연 푸른연극마을 음악극 '부용산' = 20-2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작요리'

# 글로벌 소스브랜드 이금기 요리대회

지역 대학별 예선 시작...내일 동강대

'이금기'는 1888년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한 유서깊은 굴소스 브랜드다. 이금기 소스를 이용해 창작요리를 만들어 실력을 겨루는 이금기 요리대회는 전국 50여곳 대학에서 요리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됐다. 지난 2007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금기 요리대회가 학교별 접수를 마치고 대학별로 예선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지난 7일 광주대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동강대 호텔조리영양학부에서 예선전을 갖는다. 올해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작요리'로 참가자들은 주재료인 호주 청정우유와 이금기 소스를 활용해 주제에 맞게 요리를 제출해야 하며, 경연장에서 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레시피는 한·중·양·일식 등 제한이 없으며 기본 준비와 맛, 조리기술, 독창성, 스타일링과 위생은 기준으로 3인의 요리 전문가가 심사를 맡는다.



지난해 열린 제11회 이금기 요리대회 현장.

11월까지 전국 48개 대학에서 예선을 마치고, 학교별 우승자들이 모여 11월 27일 결선을 치른다. 자체예선을 통해 학교별 챔피언으로 뽑힌 1인이 결승 진출 자격 얻게 되며,

최종 결선에 참가하는 각 학교별 우승자 48명은 부상으로 3박4일 홍콩 이금기 글로벌견학과 미식투어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연수 기자

## 미지의 터전 해양 탐험

국립광주과학관, 오는 15일부터 해양 특별전 'Under the Sea'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개관 5주년을 맞아 해양특별전 'Under the Sea - 미지의 해양탐험'을 개최한다. 인류가 개척하지 못한 바다 속 세상을 알아보는 이번 전시는 미래자원과 생활의 터전으로 주목받는 해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30여점의 해양생물 골격염색 표본과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디오라마를 통해 해양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6개의 전시 공간은 각각의 주제에 맞는 체험과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1존 '걸어서 바다 속으로'에는 고래의 입 속을 통해 바다 속 디지털 해양터널을 탐험한다. 고래 9종 30여점의 작품을 보여 본격적인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2존 '신기한 바다 속 세상'은 크기와 양으로 승부한다. 상어, 포유류, 갑각류 등 500여종 5,000여점의 해양생태 디오라마와 6m에 달하는 대형문어의 실물 모형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

로 기대된다. 3존 '달력미식-과학과 예술'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된 해양생물 표본을 전시해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엿 볼 수 있다. 4존 '이야기 속 바다괴물'에서는 움직이는 주라기시대해양공룡들과 실러캔스, 메갈로돈 턱뼈 등 고대 화석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5존 '해저 탐험대'에서는 열대어 등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는 실물 수족관과 인터랙티브 스케치 아쿠아리움, 심해 속 VR 체험, 브릭을 이용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관람객을 기다린다. 6존 '해양과 과학'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탐사선 이사부호 등 해양과학을 소개한다. 해양생물 샘플 전시 및 연구개발을 통해 해조류도 만나 볼 수 있다. 해양특별전은 오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7,000원. /이보람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작지만 강하게! 스테레오로 공기를 케어하다  
mini air DK

소비자만족센터 (구입 및 A/S 상담)  
1544-1154